

太白山 天祭의 歷史와 祭儀 樣相

김 도 현

태백산 천제위원회 / 장성여고 / 강원대 강사

I. 太白山 天祭의 역사

1. 天祭의 의미와 역사

국가 차원이나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지는 ‘天神’에 대한 의례는 고대사회에서 주재 집단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여의 迎鼓, 고구려의 東盟, 백제의 祭天地, 신라의 祭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재자가 국왕으로 대표되는 최고 지배세력에 의해 행해짐으로서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공동체 성원들 간의 통합을 강화하려고 행한 유형이 있다. 둘째는 濊의 舞天에서 보이는 음악 단위의 공동체 의례로 지속되어 음악민들의 일체감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역할과 다른 음악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의례로 작용한 유형이 있다.¹⁾ 셋째는 馬韓에서 天君이라 불리운 별도의 사제자가 주재하는 天神祭가 행해진 유형이 있다.

이후 제천 의례는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권 강화에 대한 이념적 표출로서의 제천의례보다는 건국시조와의 연관성을 통해 정당한 왕권 계승자라는 의식의 확립과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교·불교와 같은 외래사상의 수용이 더해져 제천의례는 쇠퇴하였다.²⁾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 하늘에 대한 제사가 다시 중시되었다. 도교 의례의 일환

1)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33쪽.

2)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47쪽.

으로 행해진 醯祭는 왕이 직접 주관한 親醯·大醯가 있었고, 祭天壇에서 天地 제사를 지냈다. 당시 고려에서는 고려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 왕실의 무병장수와 祈讓, 園丘祭를 통해 祈穀과 祈雨를 기원하며, 天祥祭를 통해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아 달라는 염원으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³⁾

조선시대에는 祈穀과 祈雨를 위해 園丘祭를 행하였으나, 세종 31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세조대에 부활하였으나, 세조 10년까지 園丘祭를 행하였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국가 祀典에 등재된 ‘風雲雷雨神’도 천신의 범주로 인식할 수 있고, 대한제국시대에 園丘祭를 지냄으로서 조선시대에도 천신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곳거리 중 ‘천왕곳·제석거리·세존곳’ 등에서도 천신 신앙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신앙과 관련하여 ‘세존주머니’를 모시는 경기도 화성 사례, ‘제석’을 안방에 모시는 충청도 사례, 남쪽지방의 ‘제석단지·세존단지·천왕독’ 등은 천신신앙 확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⁴⁾

2. 太白山 天祭의 역사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138)

…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巡行)하여 몸소 太白山에 제사지냈다.

[자료 2] 『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300)

…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太白山에 望祭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와서 항복하였다.

3) 김철웅,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집, 한국사연구회, 2002, 136~160쪽.

4) 조홍윤, 「天神에 관하여」, 『동방학지』, 77·78·79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13~39쪽.

[자료 3] 『三國史記』祭祀志 中祀

… 五岳은, 동쪽은 吐含山 大城郡, 남쪽은 地理山 菁州, 서쪽은 鷄龍山 熊川州, 북쪽은 太伯山 奈已郡, 중앙은 父岳 또는 公山이라고도 하였다. 押督郡이었다. …

[자료 4] 『高麗史』地理誌 東界 三陟縣

본래 悉直郡인데 신라 婆娑王 때에 항복하여 왔으며 智證王 6년에 州로 삼고 軍主를 두었으며 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郡으로 만들었다. 成宗 14년에 陟州團練使로 고쳤고 顯宗 9년에 내려서 縣令으로 하였으며 辛禡 3년에 知郡事로 올랐다. 別號는 眞珠이다. 太白山【신라 때에 五岳에 비교하여 北岳으로 삼았다.】…

[자료 5] 『高麗史』列傳 金方慶⁵⁾

… 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 어느 날 先山에 省墓하기를 빌거늘 왕이 아들 金恂을 太白山祭告使를 삼아 보내어 이를 따라가게 하니 고향에 이르러 친구를 위하여 수일 동안 머물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

[자료 6] 『高麗史』列傳 李淑

李淑의 어릴 때 이름은 福壽요 平章郡 사람이다. 어머니는 太白山의 巫女이다. 이숙은 忠烈王의 寵愛를 받았으므로 壁上三韓正匡平章君에 봉해졌고 그 후 뽑혀 元 나라에 가서 太監이 되었다. 왕이 원 나라 조정에 주청할 때는 이숙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왕의 대우가 매우 두터웠다. …

[자료 7] 『世宗實錄』 世宗 8年 4月 12日

… 강원도와 함길도의 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誑誕한 說을 가지고 民俗을 유혹시켜, 太白山의 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所在한 수령들

5) 다음 자료를 보았을 때 김방경이 다녀간 곳은 태백산임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名宦 條. '金方慶 孝印의 아들이다. 예전에 방경의 어머니가 임신하였을 때에 …', '金恂 方慶의 아들이다. 忠烈王朝에 급제하였다.'

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감사와 수령이 戶數를 계산하여 징수하기를 태연히 꺼리지 않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제사지낼 때를 당하면, 또 다른 베까지 준비하여 무당에게 주게 되므로,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저 서민이 산천에 함부로 제사 지내면서 베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실로 禮에 어긋나는 일인데, 국가에서 또한 그 베를 징수하여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게 되니, 폐해가 민생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일정한 수량의 供만 받던 일에도 어긋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을 것.

[자료 8] 『世宗實錄地理志』 三陟都護府

太伯山 府의 서남쪽에 있다. 신라에서 五嶽을 정할 때, 北岳으로 하였다. 사당이 있는데, 이름을 太伯天王堂이라 하였다. 여러 고을 사람들이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자료 9]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 本朝의 嶽鎮海濱, 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龍興江은 우리 太祖께서 興運하신 땅이고, 妙香山에 이르러서는 檀君이 일어난 곳이며, 九月山에는 檀君祠가 있고, 太白山은 神祠가 있는 곳이며, 金剛山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長白山은 先春嶺의 남쪽 甲山의 북쪽에 있어 실로 나라의 北岳이 됩니다. …

빌건대 禮官에게 명하여 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三角山을 中岳으로 삼고, 금강산을 東岳으로 삼고, 九月山을 西岳으로 삼고, 智異山을 南岳으로 삼고, 長白山을 北岳으로 삼고, 白岳山을 中嶺으로 삼고, 太白山을 東嶺으로 삼고, 松嶽山을 西嶺

으로 삼고, …

[자료 10]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권주가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江原道는 그 풍속이 귀신과 淫祀를 숭상하여 太白山에 모든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재계하고 유숙하며 혹은 寡婦가 여러 날 유숙하는 것도 있으니, 풍속을 손상하고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엄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은 일은 본도 觀察使가 마땅히 검찰할 것이니, 글을 내려 諭示하라.” 하였다.

[자료 11] 『成宗實錄』 成宗 24年 5月 21日

이덕숭 이 또 아뢰기를,

“濟川亭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것을 위하여 국가에서 이미 魚箭을 주었는데, 또 歸厚署에서 받아들이는 神堂의 退米를 주므로, 이 때문에 棺槨의 재목이 모자라니, 도로 귀후서에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顧問하였다. 領事 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歸厚署를 설치하고 太白山 · 鷄龍山 등지의 신(神)에게 바쳤다가 물린 물건을 주어 재목을 사는 데에 쓰게 한 것은 위로 大夫에서 아래로 士庶人까지 다 棺槨을 얻어서 喪用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제천정을 重修하는 중들에게 옮겨 주었으니, 귀후에서는 관곽의 재목을 사지 못하므로 引鉦軍 30명이 다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 12] 成俔⁶⁾의 『虛白堂集』 神堂退牛說

… 태백산신이란 무엇인가? 그 산은 동쪽으로 뻗어 大海에 임하여 삼척부가 되었고, 서쪽으로는 영춘, 남쪽으로는 죽계 등 두 고을을 이루었다. 산이 높아도 祀典에

6) 成俔(1439~1504) : 조선 전기의 학자.

올리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施功이 없었기 때문이다. 三道의 사람들이 山頂에 堂을 지어 神像을 모셔 놓고 제사를 올렸다. 歲時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제사를 마치게 되면 각각 神座前에 소를 매어 놓고 돌아가는데, 소를 신좌 전에 매어 놓고 돌아갈 때는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신이 벌을 준다고 한다. 3일 후에 府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이를 退牛라 한다.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면, 그 신이 邑의 城隍에 내려온다고 하여 邑人들은 깃대를 만들어 북과 피리를 성대히 갖추어 그 신을 맞아서 邑吏의 집에 둔다. 그리고 읍인들은 이곳에 몰려들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계속하여 虛日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5월 5일이 되면 還山시킨다. 이 신에게 제사드릴 때는 조그마한 鮮味라도 먼저 祭床에 올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禍를 입는다고 한다. ...

[자료 13]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太白山祠 산꼭대기에 있는데, 세간에서 天王堂이라 한다. 이 산 곁의 본도 및 경상도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하는데, 神座 앞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에 돌아볼 것 같으면 불공한 것을 신이 알고 죄준다고 한다. 사흘이 지난 다음 부에서 그 소를 거두어 이용하는데, 退牛라 한다.

『신증』 近山祠 부 남쪽 10리에 있다. 세간에서 大天王祠라 부르며,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한다.

[자료 14]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 현 남쪽 5리에 있다. 전에는 현 북쪽 30리에 있었는데, 太白山祭를 폐지한 뒤로 이곳에 옮겼다.

[자료 15] 丁若鏞의 『牧民心書』

慶尙道 觀察使 金綴⁷⁾가 太白神社를 헐어버렸다고 기록

7) 金綴 : 1577년(선조 10년)에 태어나서 1625년(인조 3년)에 돌아간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士精이며, 호는 南峰·深谷이다. 1597년(선조 30년)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說書를 거쳐 1608년 賜暇讀書했다. 광해군 때 사司僕寺正·이조참의·동부승지·대사간을 거쳐 각종

[자료 16] 許穆의 『眉叟記言』 退牛條

… 원근에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태백신에게 災厄을 기도한다. 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神祠 밑에 매어 놓고, 祝言을 마치면 소를 그냥 두고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돌아보면 신에게 바치는 소를 아낀다 하여 신이 歆饗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당 아래 있는 소를 산 밑의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아무런 재액이 없었다. 이것을 退牛라 했는데, 官府에서 이 말을 듣고 監考를 정하여 날마다 관청에 드리게 했다. 그러다 冲學이란 山僧이 그 사당을 불지르자 祠가 없어졌고, 소를 바치는 일도 없어졌으므로 감고도 폐지하게 되었다.

[자료 17] 許穆의 『眉叟記言』

… 무지한 백성들이 백두옹(白頭翁)을 가리켜 태백산 신령이라 하는데, 태백사(太白祠)의 기도로 길흉을 점친다고 한다. 전에 태수(太守)로 죽은 몇 사람이 모두 백두옹인데, 인심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혹은 꿈에 백두옹만 보이면 모두 죽었다 하나 이것에는 까닭이 없다.

[자료 18] 許穆의 『陟州誌』

太白山과 관련하여 정상부에 天王祠가 있어 봄 가을로 제사 지내고, 소를 바친다

[자료 19] 『崔先生文集道源記書』⁸⁾

… 수운 사후에도 설단제천이 거행되었는데, 李弼濟는 관의 추격으로 쫓겨다니다가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 인근 관아를 습격하였다. …

벼슬을 하였으나, 광해군의 학정이 날로 심해짐을 깨닫고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이 있을 무렵 沈器遠과 사전에 내통하여 벼슬길에 다시 올랐으나, 大北派로 몰려 유배당하였다. 그 뒤 풀려나 동래부사를 거쳐 1625년(인조 3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하고 經書에 통달했고, 특히, 점술을 연구하여 天文에 밝았다. 저서로는 深谷秘訣이 있다.

8)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9, 220쪽.(최종성, 「숨은 天祭 -조선 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발표자료집』 (제 149차 연구발표회),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4쪽에서 재인용).

[자료 20]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⁹⁾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

위에서 소개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라 때부터 태백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운영 사례는 국가 주도과 지방 관아가 관여하여 주로 민간인들이 致祭한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예는 [자료 1~5]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三國史記』 祭祀志 中祀・『高麗史』 地理誌 三陟縣條와 함께 『高麗史』 列傳 金方慶條에는 “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 어느 날 先山에 省墓하기를 빌거늘 왕이 아들 金恂을 太白山祭告使를 삼아 보내어 이를 따라가게 하니 고향에 이르러 친구를 위하여 수일 동안 머물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신라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태백산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태백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致祭는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九月山에 있는 檀君祠와 함께 太白山에 神祠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長白山을 北岳으로 삼고, 白岳山을 中鎮으로 삼고, 太白山을 東鎮으로 삼고, 松嶽山을 西鎮으로 삼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祀典에 태백산을 포함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서 태백산이 국가 제사 체계 내에 편제되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祀典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9) 일제 강점기 때의 태극교도 관련 재판 기록과 태백산 천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태백문화원 사무국장인 안호진님이 제공해 주셨다.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린다.

둘째는 지방 관아가 관여하여 주로 민간인들이 致祭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列傳 李淑條에 ‘이숙(李淑)의 어릴 때 이름은 福壽요 平章郡 사람이다. 어머니는 太白山의 巫女이다. …’라는 기록을 통하여 고려 후기에 이미 태백산에서 巫俗 신앙이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世宗實錄』 世宗 8年 4月 12日, 『成宗實錄』 成宗 24年 5月 21日, 成倪의 『虛白堂集』神堂退牛說,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許穆의 『眉叟記言』退牛條, 許穆의 『陟州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 관청과 무녀들이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후 두고 오는 베·소 등을 관청이나 무녀가 거두어 사용하였는데, 너무 과하여 민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許穆의 『眉叟記言』에서는 백성들이 태백산에서의 제사에 너무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에서 太白山社를 헐고, 太白山祭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은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 丁若鏞의 『牧民心書』(경상도 관찰사 金緻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태백산에 설치되었던 제당 명칭인 ‘太伯天王堂·天王堂·天王祠·구령탑’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태백산에서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許穆의 『眉叟記言』과 『陟州誌』를 보면 ‘太白山祠 = 天王堂’ 이고, ‘太白山祠 = 天王祠’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록에 나타나는 太白山祠나 太白山祠 등으로 불리우는 제당에서도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태백산제가 곧 천제였다고 볼 수 있다.

[자료 19]에서 동학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운 최제우 死後에도 設壇祭天이 거행되었는데, 李弼濟는 관의 추격으로 쫓겨 다니다가 태백산간에서 제단을 만들어 天祭를 지낸 후 인근 관아를 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

즉, [자료 19, 20]은 태백산에서의 천제가 태백산 주위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종교 집단에서도 태백산에서의 天祭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태백산 천제단과 그 제의 주체 등의 변화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1. 1949년 자료에 의하면 태백산제는 10월 3일 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되었다.
2. 한국전쟁 중에 헬기 착륙장 조성으로 천제단이 헐렸다.
3. 1967년 봉화군 물야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우성조 씨가 강원도·경상도인의 지원을 받아 천제를 지냈다.
4. 1977년 경 우성조씨가 대종교로 입문하자 강원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둘러싸고 분열하여 강원도 사람들은 소도 당골에 단군성전을 짓고 별도의 제사를 올렸다.
5. 1987년에 태백산천제위원회가 태백시에서 결성되어 태백문화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여 매년 개천절에 天祭를 지내왔다.
6. 2008년 태백산천제위원회를 ‘천제 보존회’로 명칭을 바꾸어 태백문화원장이 보존회장을 겸임하여 매년 개천절 午時(낮 11~01시)에 天祭를 지낸다.

10) 태백산 천제에 대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으며, 광복 이후의 운영 양상에 대하여는 이들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장정룡, 「태백산 천제 -민족 永生을 위한 聖祭-」, 『太白文化』 제 4집, 태백문화원, 1990. 장정룡, 「민족 영생을 위한 성스런 제의 태백산 천제, 강원도 민간신앙」, 『월간 태백』 1월호, 강원일보사, 1991.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性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김선풍, 「太白山天祭와 檀君神話의 構造」,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최승순, 「崇山意識과 太白山天祭」,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장정룡, 「태백산 천제와 향토축제」,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장정룡, 「한밤움의 성스런 제전 -태백산 天祭-」, 『중등 우리교육』 11월호, 월간 우리교육, 1996. 임동권·민제·김선풍, 『태백산 민속지』, 민속원, 1997. 琴昌憲 外, 「太白山의 民俗資料」, 『太白山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1997, 201~202쪽. 太白山, 『太白山誌』, 1998, 628~629쪽.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 『江原民俗學』 第15輯, 江原道民俗學會, 2001, 271~293쪽.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Ⅱ. 太白山 天祭壇[天王壇]과 관련 유적

1. 개황

태백산 천제단[천왕단]은 태백산 정상에 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및 혈동 산87-2이다.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1991년 10월 23일 지정되었으며, 천왕단과 함께 지정된 자료는 천왕단 뒤쪽 북방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장군단과 천왕단 남쪽 언덕 아래에 위치한 하단이다.



그림 1. 태백산 천왕단 전경.

그리고 정상에서 500m쯤 아래에 望鏡寺라는 사찰이 있고, 여기에는 龍井이 있어 옛날부터 천제 모실 祭需 준비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망경사 부근에는 ‘朝鮮國 太白山端宗大王碑’라는 명문이 새겨진 端宗碑閣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계기는 1950년대 중반에 한 무녀의 꿈에 단종이 태백산신으로 현몽하여 세웠다고 한다. 이는 18세기부터 단종이 死後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영월 지역 주민들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태백산 내의 현재 신앙 공간을 크게 정리해 보면 제당골에 있는 서낭당에서 시작하여 장승거리, 반재, 당골을 거쳐,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을 지나, 망경사와 용정, 단종비각, 천왕단, 장군단, 하단을 거쳐 문수봉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 신성 공

11) 김효경, 「단종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천제를 위한 실제 종교 공간은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 터부터라고 하며, 여기서부터는 근신하여야 한다.



그림 2. 태백산 망경사 옆 용정.

그리고 대중교 종단은 1987년 지역유지들과 제휴하여 당골에 단군성전을 건립 하면서 태백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天祭에서 분리되어 자체 건립한 단군성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2. 天祭壇[天王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장군단과 하단의 중간에 있는 해발 1,560m의 봉우리에 위치한 중심 제단이다.

천왕단은 그 규모 면에 있어 다른 단과 달리 월등히 크며, 다음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太伯天王堂・神祠・太白山祠・天王堂・太白神社・太白祠・天王祠・구령탑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표 1. 역대 기록에 나타난 太白山 관련 제당, 제의, 제관 명칭.

기록 (시기)	제당/제의/제관 명칭	제사 일시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138)	… 북쪽으로 순행(巡行)하여 몸소 太白山에 제사지냈다.	10월
『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300)	…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태백산에 望祭를 지냈다.	3월
『三國史記』 祭祀志 中祀	[中祀] … 북쪽은 太伯山奈已郡, …	
『高麗史』 列傳 金方慶	太白山祭告使	1283년
『世宗實錄地理志』 三陟都護府	太伯天王堂	봄 · 가을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神祠	1456년
成倪의 『虛白堂集』 神堂退牛說	태백산에 당이 있다.	4월 8일 강림 / 5월 5일 태백산으로 돌아감.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太白山祠[天王堂]	봄 · 가을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太白山祭	
丁若鏞의 『牧民心書』	太白神社	1625년 (경상도 관찰사 金緻 在位 시기)
許穆의 『眉叟記言』	太白祠	許穆(1595~1682)
許穆의 『陟州誌』	天王祠	許穆(1595~1682)
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구령탑	1938년

‘太伯天王堂 · 天王堂 · 天王祠 · 구령탑’이라는 명칭은 태백산의 神格을 모두 天神 · 天王으로 보는 호칭이며, 구령탑은 天의 9개 分野인 九天에서 유래한다. ‘神祠 · 太白山祠 · 太白神社 · 太白祠’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후대에 일부에서 부르는 마고탑은 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가 쌓은 탑이라는 의미로서, 천지가 시작된 공간임을 암시한다.¹²⁾

12)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6쪽.



그림 3. 태백산 천왕단 내 제단 및 위패.

1953년 사진 자료에 의하면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방추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¹³⁾ 이후 정비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제단은 자연석 편마암으로 쌓았으며,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둘레 27.5m, 높이 2.4m, 폭은 좌우 7.4m, 전후 8.4m의 약간 타원형을 이룬 원형제단이다. 남쪽으로만 계단이 설치되었고 석단 상부에는 제단이 설치되었다. 제단의 앞면 축대에는 「天祭壇/大倥敎太白支司謹製」라 새긴 글이 남아 있다. 天祭壇[天王壇] 내부에는 장방형으로 축조한 제단이 있으며, 제단 위에는 높이 76cm, 폭 40cm, 두께 30cm 정도의 「한배검」이란 비가 있다. 제관들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과 같은 형태로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라는 전통 의식을 반영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백산 천왕단과 장군단 일원에서 2000년 4월 9일 신인수씨에 의하여 쇠마 4점이 수습되어, 2000년 11월 30일 국가에 귀속된 후,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유물번호:국립춘천박물관 152~155). 4점 모두 말의 등에 안장이 놓여 지고 유물번호 154번을 제외하고 꼬리 쪽에 말띠꾸미개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¹⁴⁾

유물번호 154번은 등과 목이 수평을 유지하고, 나머지 3점은 고개를 약간 들고

13) 이준구 제공 사진, 「1953년 천제단」,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김강산 편), 태백문화원, 1994.

14) 이와 같은 형태의 쇠마는 태백시 도릉,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미로면 내미로리, 원덕읍 이천리, 정선군 남면 낙동리 등 인근의 많은 서낭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있는 형태이다. 유물번호 152번은 높이 7.2cm, 길이 16.9cm이고, 153번은 높이 10.5cm, 길이 17cm이다. 154번은 높이 9.2cm, 길이 16.6cm이며, 155번은 높이 10.2cm, 길이 14.9cm이다.¹⁵⁾

3. 將軍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중앙에 위치한 천왕단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데, 지도상에서 해발 1,566m의 「태백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봉우리가 장군단이 있는 지점이다. 유일사 방향에서 등산하면 3개의 제단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이다. 제단의 높이는 약 2.9m이고, 둘레는 약 20m로 장방형이며 편마암으로 축조하였다. 남쪽으로만 계단을 설치하였고, 내부의 중앙에 70cm 정도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 내에는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장군단의 神格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¹⁶⁾



그림 4. 태백산 장군단 전경.

15)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16)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7쪽.



그림 5. 태백산 장군단 내 제단.

4. 下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천왕단 남쪽 언덕 아래로 0.2km 지점에 있다. 夫蘇壇 또는 丘乙壇으로도 불리운다. 별도로 지내는 제는 없으며, 북쪽으로만 계단이 없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모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단 꼭대기의 북쪽면에 45cm 가량의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에 정비한 것으로 단의 총 높이는 약 190cm 정도이고 폭은 약 510×410cm이다.¹⁷⁾



그림 6. 태백산 하단 전경.

17)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Ⅲ. 太白山 天祭의 祭儀 樣相

1. 광복 이전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宿旗·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¹⁸⁾

2. 광복 이후

가. 1949년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시멘트 단과 한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段으로 쌓아 올렸다. 그 주위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九星旗 또는 七星旗를 세웠고, 제물도 아홉 종류였다.¹⁹⁾

崔翼漢氏의 手記(1949년)에 의하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七星旗와 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배치하였다. 祭器는 봉화군 춘양의 鑪器店에서 81개를 맞추어 1회만 사용했다. 모든 참제자는 저녁에 登頂하여 천제를 모시고 아침에야 하산했다.

제관은 모두 白衣 도포를 입었다. 參祭할 사람은 1년 전부터 일체의 부정을 가리고 心身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했는데, 아홉 종류의 제물을 아홉 벌 장만했다. 곧 81개의 제물을 올린 셈이다. 靑玉, 靑松葉, 金, 銀, 珍珠, 白米 외에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2종류가 더 있었다.²⁰⁾

18)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 / 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19)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성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40쪽.

20)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성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43쪽.

이러한 제사는 강화도 璽星壇에서도 베풀어졌는데, 참성단의 제사가 도교식 醮祭의 형식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제사 형식도 초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33천기와 28수기의 존재나 9종 9별의 81가지의 제물 등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이다.²¹⁾

나. 현존 양상

태백산 천제는 1987년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준비와 의례를 주관하여 지내다가, 2008년에는 그 명칭을 ‘천제 보존회’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08년 天祭를 주재하는 인사는 제주(태백시장 박종기), 현관(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태백문화원장 권영한), 번시관(정창교), 집례(안석호), 축관(김영복), 집사(이창복)이다. 실무 준비는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3일 천제단에서 午時(오전 11~ 오후 1시)에 天祭를 지낸다. 준비하는 제수는 천주[가양곡왕주]·소머리·오곡[쌀·보리·콩·조·기장]·고사리·미역·대구포·밤·대추·곶감·백설기[1시루]·삼베·물이며, 이와 함께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산에서 가져온 흙을 각각의 주머니에 담아 올린다. 물은 태백산 정상 아래에 있는 龍井의 물을 이용한다. 메는 준비하지 않으며, 소머리와 떡을 제외하고 다른 제수는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천제단 내부에는 해와 달, 북두칠성을 그린 기를 세웠는데, 동쪽에 세운 해 깃발 안에는 三足鳥를, 서쪽에 세운 달 깃발 안에는 토끼 그림을 그렸다. 이와 같이 해와 달을 그린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圖像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북두칠성이 각 절기의 기준 별자리여서 이를 그린 깃발을 제단 북쪽에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단 외곽에는 28수기와 각종 염원을 쓴 깃발을 세웠다. 28수기는 『天文類抄』·『步天歌』·『星鏡』·「天象列次分野地圖」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을 28개의 주요 별자리를 이용하여 동·서·남·북으로 구분한 후 이를 각각 청룡·백호·주작·현무라는 사신에 대비시켜 만든 별자리 깃발이다.²²⁾ 구체적으로

21)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8쪽.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角星旗, 亢星旗, 氐星旗, 房星旗, 心星旗, 尾星旗, 箕星旗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각각의 깃발에 그렸으며, 서쪽에 배치한 깃발에는 奎星旗, 婁星旗, 胃星旗, 昂星旗, 畢星旗, 觜星旗, 參星旗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각각의 깃발에 그렸다. 북쪽에 배치한 깃발에는 斗星旗, 牛星旗, 女星旗, 虛星旗, 危星旗, 室星旗, 壁星旗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렸으며, 남쪽에는 井星旗, 鬼星旗, 柳星旗, 星星旗, 張星旗, 翼星旗, 軫星旗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려 세웠다.²³⁾ 이들 깃발 중 제단 내에 배치한 깃발은 노란색 테두리,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청색[초록색] 테두리, 서쪽에 배치한 깃발은 흰색 테두리, 남쪽에 배치한 깃발은 붉은 색 테두리, 북쪽에 배치한 깃발은 남색 테두리로 마감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제단 내에 해·달·복두칠성을 그린 깃발을 세우고, 제단 외곽에 28宿旗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운 것은 태백산에서 天祭,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들을 깃발로 만들어 배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수기와 함께 ‘世界平和・民族 統一・國泰民安・雨順風調・民族의 靈山 太白山・太白山 天祭[大韓民國 天祭]’라고 각각 쓴 깃발을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이 깃발은 天祭에서 기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938년 이전에 태백산에서 천제를 거행할 때 28수기를 비롯한 별자리 깃발을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공식적인 기록은 위에서 소개한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6일(음력5월 8일) 윤상명을 비롯한 교도들이 독립 기원제를

22) 박창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집, 한국과학사학회, 1998, 113~149쪽. 양홍진·박명구, 「천문유초(天文類抄)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四神動物天文圖) 연구」, 『한국우주과학학회지』 20집, 한국우주과학학회, 2003, 83~94쪽.

23) 28수기와 그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 1) 1897년(광무 1)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에 오르면서 별자리 28宿의 별을 상징한 28개 旗를 의장에 사용하였다. (예 2) 28개의 깃발을 사용하는 예는 무녀가 기도를 하기 위한 壇을 설치할 때 오방기와 28 將軍旗를 설치하기도 한다. (예 3)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서 지내는 별신제를 마을에서 천제라 부른다. 전해지는 문적들에서는 천제라는 말을 찾을 수 없지만 마을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곳을 고르다보니까 냇가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 한다. 매년 여름철에 큰물이 지면 바닥 청소가 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가장 깨끗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별신제에서 모시는 신은 모두 3位로서 天地人을 신격으로 하여 모신다. 별신제를 지낼 때 대나무를 28개 잘라 제당 주변에 두른다. 마을에서 대나무 28개는 하늘의 28宿를 뜻한다고 한다.(나경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5~28쪽.).

24) 2008년 10월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열린 ‘『開天節』 고천문 워크숍’에서 현재 태백산 천제를 지낼 때 세운 28수기의 별자리와 세운 방향이 고천문 관련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이 양홍진 박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지내면서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팔만기·오행기·구령기와 함께 일월성신기와 28宿旗를 세웠다는 기록, 1949년 사진과 최익한씨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태백산 천제를 지낼 때 제단 주위에 별자리 깃발을 세운 전통은 1987년 태백산 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천제를 주관하기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제단 주변 들레들에 금줄을 3겹으로 둘러서 참제원들이 각자 소원을 적은 한지를 끼운 후 천제가 끝나고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참제원들의 염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해 준다.



그림 7. 천제단 입구에 금줄을 친 광경.



그림 8.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천제단 주위의 28수기, 만장기와 참제원들.



그림 9. 2008년 천제 거행 전의 전통제례악 연주.



그림 10. 2008년 천제 거행 전의 천무 공연.



그림 11. 소원을 적은 한지를 금줄에 거는 모습.

1987년부터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천절에 지낸 天祭 순서는 다음과 같다.²⁵⁾

- 영신굿 : 풍물패가 영신을 위해 풍물을 울리며 천제단 앞에서 영신 맞이굿을 한다.
- 천황굿 사설 구송 : 박용문 外 10명으로 구성된 태백문화원 문화학교 동문들이 천황굿 사설을 구송한다.
- 開儀 : 집례가 천제의 개의를 알린다.

25)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 『江原民俗學』 第15輯, 江原道民俗學會, 2001, 271~293쪽.
대한민국천제 보존회, 「대한민국 천제 안내문」, 2008.



그림 12.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집례인 안석호씨가 홀기를 읽으며 진행한다.



그림 13. 제단에 오르기 전에 제관들이 손을 씻는 관세위.

- 燔柴禮 : 草衣를 입은 燔柴官이 쭉을 들고 등단하여 火爐에 쭉을 태워 잡귀를 쫓고 天祭를 하늘에 알린다.



그림 14.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번시례.

- 降神禮 : 집사의 인도를 받은 제주는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닦고 등단하여 천제단 앞에 꿇어앉는다. 향을 사르고 천잔에 술을 따라 제단 앞에 부어 신을 내리게 하는 의식으로, 제주는 9번 절한다.



그림 15.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주가 향을 사름.



그림 16.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강신례에서 제관이 절을 함.

- 參神禮 : 제주는 봉작에게 받은 천잔에 술을 부어 천단에 올리고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을 한다.
- 奠幣禮 : 제주는 봉지들로부터 받은 폐백[삼종천·오곡·천수]을 천단에 바친다.



그림 17.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전폐례에서 봉지들이 제수를 천단에 올림.

- 進饌禮 : 제주는 봉찬들로부터 받은 제례 음식물[천채·천소·천과·희생 등]을 천단에 올린다.



그림 18. 2008년 태백산 천제에 따른 제수 진설.

- 告天禮 : 축관이 제수 옆에 꿇어앉아 고천문을 봉독한다. 이때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꿇어 엎드린다.
- 獻酌禮 : 아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후 종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림 19.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고천례.



그림 20.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헌관이 헌작례를 행함.

- 送神禮 : 제례의식이 끝나고 신을 배웅하는 의식으로 제주가 다시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초자로 모든 천잔에 천주를 세 번씩 첨작을 한다. 그리고 제주이하 봉향봉작들은 천단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가서 서고 이어서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한다.
- 飲福禮 : 천단에 바친 제물을 내려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그림 21.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음복을 함.

- 燒紙禮 : 신령 앞에서 비는 뜻으로 한지를 불살라서 하늘에 올리는 의식으로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차례로 등단하여 소지를 올린다.



그림 22.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소지를 올림.



그림 23.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소지를 마친 후 참제원들이 소지를 올림.

고천례를 행하면서 축관이 봉독한 고천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단군기원 4341년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천제보존회 회원들과 태백시민 그리고 전국의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태백시장 박종기는 재계목욕하고 정성들여

태백산 천제단에서 삼가 한배 하느님께 고하나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모두의 시조신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강림좌정하시어 굽어 살피사 애궁히 여기소서

배달겨레의 조상이시며 삼만리 강산의 주신이시며 삼신일체 상제님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영검하신 신통력으로 분열된 겨레와 국토가 하나되게 하시고 국태민안 우순풍조 시화연풍되게 하소서

그리고 험벗고 굶주리고 병마에 신음하는 생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류의 세계평화가 회복토록 도우소서

영검하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지금 우리겨레는 어려운 국제환경과 국론분열의 어둠을 지나고 있사온 즉 부디 온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자애롭고 인자하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대자연의 주재자요 천지신명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일상이 편케 하시고 모든 일이 각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배하느님이시여

이 겨레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익인간 이념이 온 누리에 퍼져 지상낙토가 이루어지도록 간구염원하오며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간절한 제수를 삼가 갖추어 받들어 올리오니 소례를 대례로 여기시와 흠향하소서

IV. 太白山 天祭의 의미와 성격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주도로 지내는 천제는 왕실의 권위 확보, 자주성 확립, 기우 등을 목적으로 지냈으나, 민간에서 행해진 천제는 각종 거사 성공을 기원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추구할 때, 또는 독립 기원·기우·기곡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내는 예가 매우 많다. 따라서 천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목적하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라대부터 시작된 태백산에서의 제사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대외 팽창과 정복지 巡狩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祀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백산이 中祀를 지내는 곳으로서 중시되었으며,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인식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사전 체제에 비록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전기인 세조대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왕조실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이에 지방 관청과 무당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종 21년 기사,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條, 경상도 관찰사 金緻가 太白神社를 헐어버렸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태백산에서의 致祭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허목의 글을 보면 이후에도 태백산에서의 致祭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에서의 치제가 종교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태백산 주변 마을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거리 등의 문제로 인해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마을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태백산에서의 천제에 대한 기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때 삼베나 소를 바친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제의 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까지 천제를 지낼 때 별을 그린 깃발이나 기타 상징물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필자는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1938년 기록을 확인하여 28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단을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확인하였다. 1949년 기록에도 태백산에서 10월 3일 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천제를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七星旗와 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동해시 동호동 등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제단과 관련하여 필자의 다음 논문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도현, 「삼척의 봉수와 관련 민간신앙」, 『강원사학』 19·20합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4.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 2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김도현,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 운영과 그 성격」, 『박물관지』 14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8년 2월.

28宿旗와 그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예는 대한제국에서 28宿의 별을 상징한 28개 旗를 의장에 사용한 예, 무속에서 28 將軍旗를 설치하여 정성을 드리거나, 전남 장흥군 호계리에서 하늘의 28宿를 상징하는 대나무 28개를 제단 주위에 배치하여 별신제를 지내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단 주위에 28개의 별자리를 그린 깃발을 배치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백산에서 日月旗・北斗七星旗・28宿旗를 제단 주위에 배치하여 천제를 지내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 33천기와 28수기의 존재나 9종 9벌의 81가지의 제물 등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히려 도교식 醮祭의 모습을 일부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태백산에 설치되었던 제당 명칭이 ‘太伯天王堂・天王堂・天王祠・구령탑’이라는 것에서도 태백산에서 천신을 모시고 천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기록을 종합해 보면 ‘太白山祠 = 天王堂’ 이고, ‘太白祠 = 天王祠’ 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太白山祠나 太白祠 등으로 불리우는 제당에서도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太白山祭가 곧 天祭였다고 볼 수 있게 한다.

덧붙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태백산 산신으로 좌정한 단종대왕이 이곳을 찾는 무속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두텁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 또한 태백산 천제의 지속과 변동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요소로 볼 수 있다.

[부록] 2008년 大韓民國 天祭 笏記

지금부터 단군기원 사천삼백사십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태백산 천제단에서 대한
민국 천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제관과 모든 참제원은 제자리에 바로 서시오

燔柴禮

번시례를 행합니다

번시관은 등단하시요

번시하시요

번시관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시오

번시관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오

降神禮

강신례를 행합니다

봉향 봉작은 등단하시요

봉작은 촛불을 밝히시오

집사는 제주를 인도하시요

제주께서는 대야에 손을 씻으시오

제주께서는 등단하시요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오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제주께 전하시요

천주를 드리시오

제주께서는 천주를 땅에 세번 부으시오

천잔을 오른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봉작은 천잔을 천단에 올려 놓으시오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시오

參神禮

참신례를 행합니다

제주께서는 꿇어 앉으시오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제주께 전하시요

천주를 드리시오

제주께서는 천주를 왼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왼쪽 봉작은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오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시오

奠幣禮

전폐례를 올립니다

집사는 읊하고 봉지들을 인도하시요

곡지 사지 화지를 차례로 제주께 전하시요

제주께서는 받들어 왼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왼쪽 봉작은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오

곡지는 첫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오

사지는 첫째줄 왼쪽에 올리시오

화지는 첫째줄 오른쪽에 올리시오

봉지들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 가 서시오

제주께서는 천단앞에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다르시오

봉향은 물러나 제자리에 서시오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바로 서시요

進餐禮

진찬례를 올립니다
집사는 읍하고 봉찬들을 인도하시요
천수는 둘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요
천재는 둘째줄 왼쪽에 올리시요
천소는 둘째줄 오른쪽에 올리시요
천병은 셋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요
천과는 셋째줄 왼쪽에 올리시요
천포는 셋째줄 왼쪽에 올리시요
희생은 앞쪽 가운데에 올리시요
봉찬들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제주께서는 천단앞에 꿇어 앉으시요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요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서시요

告天禮

고천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축관을 인도하시요
축관은 제주 왼쪽에 서시오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꿇어 엎드시시요
축관은 고천문을 봉독하시요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요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요

제주와 축관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獻酌禮

헌작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헌관을 인도하시요

헌관께서는 대야에 손을 씻으시요

헌관께서는 등단하시요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헌관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요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헌관계 전하시요

봉작은 천주를 드리시요

헌관께서는 천잔을 받들어 오른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봉작은 천잔을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요

헌관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시요

헌관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바로 서시요

헌관께서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送神禮

송신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제주를 인도하시요

제주께서는 등단하시요

제주께서는 천단 앞에 꿇어 앉으시요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요

제주께서는 일어나 모든 천잔에 초자로 세번 첨작하시요

제주이하 봉향 봉작은 모두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 가 바로 서시요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요

飲福禮

음복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읊하고 삼헌관을 인도하시요
삼헌관은 등단하시요
음복위에 정좌하시요
집사는 천잔을 내려 헌관게 드리시요
삼헌관은 천주를 마십니다
삼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燒紙禮

소지례를 행합니다.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차례로 등단하여 각자 원하는 바를 빌며 소지를 올리
시오.
이것으로 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